

무주군,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탄력

보강사업 위한 도비 6억원 확보... 2022년까지 20억원 투입 사업 추진

무주군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비(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설 노후(2003년 준공, 내구연한 3년 경과)에 대응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출수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사업비 확보에도 부심하고 있다.



무주군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비(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사진은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 사업비는 13억원으로, 3,000㎡ 규모의 저류조 설치 사업비 총 19억원 중 미 확보된 부분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종합처

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규모는 2,000㎡로 침출수 보관량이 한계치에 달해 침출수 처리시설 과부하와 매립장 제방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 연장

장수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하고 매출 심사 기준 등 요건을 완화한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화훼(관상수류 포함),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화훼류 재배농가로 영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절화나 관상수류 등을 2019년도와 2020년에 실적작해 농협이나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통해 19년도와 20년도에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9년과 비교해 20년에 감소한 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실경작 농가로 학교급

식지원센터나 지자체·교육청·학교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로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한 농가가 해당된다.

기한 내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각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현재까지 장수군에서는 13개 농가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조건 완화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두 가지로 접수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5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조건은 당초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중 산림청에 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제한됐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 감소 증빙에서 '2020년 총매출액 120만원 이상' 부분도 삭제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임업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주로 제한적이었으나 임업면적 기준 5ha 미만, 임야 외 토지 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4월 1일로 변경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청 구내식당 운영 축소

관내 음식점과 상생·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식의 날' 추가 운영

진안군청 공직자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내 요식업계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동참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2019년 6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을 운영하며 관내 음식점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춘성 진안군수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자 군은 외식의 날을 1일 더 늘려

매주 수, 금을 '외식의 날'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식사 제공일에도 제공량을 170인분에서 100인분으로 줄여 많은 직원들이 관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식당 식재료 구입도 관내업체와 관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 특성 상 공직자들의 관내 소비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 군청 구내식당 운영 축소를 결정했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관내 식당 및 업체 이용을 활발히 해주길 바라며, 관내 유관기관도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영농 경영체 대상 기본·심화교육 실시

무주군이 2021년 감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고취시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킨다는 취지다.

7일 기본교육에 이어 14일과 21일, 28일, 3일에 걸쳐 심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교육에는 4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 일반 및 식품 트렌드 변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 3차 심화교육을 통해 감소농 경영개선 목표를 위한 실천노드와 사업계획서 작성, 농산물 백화점 유통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방법, 농업경영의 목표와 활용, 유통 제안서 개념 및

작성 방법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은 자율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선도 농업경영체로 육성 시킨다는 취지"라며 "사업마인드가 형성되면서 농업 경영체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짓기 좋은 무주에서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체크, 교육생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초등학생 대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진안군은 오는 7월까지 드림케어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관리 사업으로 영양·식생활 교육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드림케어지역아동센터'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줄놀이, 손수건놀이, 공놀이, 뉴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

형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생활교육, 요리체험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시기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운영한다.

한편, 군은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참여 신청 효용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참여기관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분양 성황리 종료

진안군은 농촌지역으로의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군의 청정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진안읍 소재지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용지 일반분양을 지난 4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급 주택용지 30필지에 47명의 분양신청자가 접수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은 읍소재지와 인접해 있고 진안IC에서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마이산 도립공원과도 1.5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주택단지조성을 6월 말 완료할 계획이며 선정된 30필지 분양신청자들은 6월 중 분양 계약을 완료해 7월부터 건축에 착수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무주군이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원 담당공무원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에 노출되면서 심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어 심리 상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전문 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민원봉사와 내에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직원은 누구나 상담사와 1:1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철저한 비밀보장 선에서 상담이 이뤄진다면 민원 처리과정에서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도 심리치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